

## 래리 리버스(Larry Rivers)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연구

1950년대 래리 리버스 작품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ego identity' of Larry Rivers  
focusing on the works of Larry Rivers completed during the 1950s

주 저 자: 김종열 (Kim, Jong Ryeol)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sicili@hanmail.net

---

접수일자 2018. 11. 25. / 심사완료일자 2018. 12. 24. / 게재확정일자 2018. 12. 26.

본 논문은 2017학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Abstract

Sculptor, jazz musician, and designer - Larry Rivers was a versatile American artist who foresaw the rise of pop-art early on in his career. his work is often described as being somewhere between abstract expressionism and pop-art. This study focuses on the people in the orbit of Larry Rivers' world during the 1950s as well as his family paintings. The objective is to infer the ego identity of Larry Rivers as an artist. The 'ego identity' this study tries to explore based on his work leads onto the relentless willingness to challenge and fight for new things, a sentiment that is evident in his expressions as an artist. Rivers, his life, his sexual identity, and less than ordinary 'family' history all played a part in forming his incomplete and ambiguous artistic identity. This is important in discussing Larry Rivers' work and life. Also,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n ordinary person trying to find his identity as a person in society, surrounded by family and friends, rather than a unique journey based on the personal family history of Rivers.

## Keyword

Larry Rivers, ego identity, Abstract Expression

## 요약

미국의 화가이며 조각가, 재즈 연주자, 디자이너라는 다양한 이력으로 표현되는 래리 리버스(Larry Rivers)는 다방면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활약과 함께, 팝 아트를 일찌감치 예견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소위 추상표현주의와 팝 아트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을 통해 래리 리버스의 1950년대 주변인과 가족초상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작가의 자아적 정체성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래리 리버스의 작품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던 그의 '자아 정체성'은, 래리 리버스의 작가적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던 표현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의 과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삶과 그의 성적정체성,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래리 리버스와 그의 '가족'의 역사는, 그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작가의 자아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이 래리 리버스의 작품과 삶을 논하는 것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것은 리버스의 개인적인 가족사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회와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목차

### 1. 서론

### 2. 작품 <O'Hara Nude with Boots (1954)>와 래리 리버스의 성적 정체성 표현

### 3. 래리 리버스의 가족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몸의 표현

### 4. 가족과 사회 속에서 분열된 자아정체성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미국의 화가이며 조각가, 재즈 연주자, 디자이너라고 표현되는 래리 리버스는 다양한 방면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활약과 함께 팝 아트를 일찌감치 예견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독창적인 개성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의 작품에 대하여, 평론가 존 그루엔(John Gruen)은 래리 리버스의 작품들이 반(semi)-추상주의, 반-사실주의, 팝-아트 또는 후기 낭만주의나 신 고전주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sup>1)</sup>이라고 말했으며,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소위 추상표현주의와 팝 아트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래리 리버스의 다양한 개성이 나타나는 작업방식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연구는 독창적인 작품에 관한 분석에서부터, 작품표현에 있어서의 사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캠프와 동성애적 문화 그리고 프랭크 오하라(Frank O'Hara)와의 활동과 관련하여 래리 리버스의 동성애적 부분에 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래리 리버스가 추상표현주의 이후 다양한 표현장르에 영향을 미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방향의 다양성, 혹은 추상표현주의와 팝 아트의 사이라는 애매한 위치 때문인지 그에 대한 연구는 그의 활동에 비해 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남성주의 적인 성향이 강했던 1950년대 뉴욕화단에서, 래리 리버스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한 연구는 그의 작품과 사회적, 정신적, 예술적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래리 리버스의 동성애적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이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그의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에서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어있어, 그의 성적 정체성 내면에 잠재되어있을 '자아 정체성'에 관련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래리 리버스는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예술과 삶에 관련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작가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언제나 나의 미술이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 국한되어 있음을 본다. 내가 탐색하기 위해서 나가서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가 세간의 사과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예술을 만든다. 그러나 나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내가 예술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나 자신'에 관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sup>2)</sup>라고 자문한

1) 1999 exhibition at the Marlborough Gallery in New York City, gallery quoted critic John Gruen <http://www.tfaoi.com/aa/3aa/3aa247.htm>

바 있다. 그렇게 래리 리버스에게 있어 자아 정체성은 그의 작업에 있어 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래리 리버스의 1950년대 주변인과 가족추상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작가의 자아적 정체성을 유추해 보는 것에 본 논문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작품 <O'Hara Nude with Boots (1954)>와 래리 리버스의 성적 정체성 표현

래리 리버스는 예술에 대해 말할 때 삶의 관계를 중요시 한 작가였다. 리버스의 작품 활동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친 프랭크 오하라(Frank O'Hara)는 래리 리버스와의 만남을 이렇게 소개 하고 있다. “나는 내가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1950년대부터 래리 리버스와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많은 뉴욕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카테일파티에서 서로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래리 리버스는 ‘결국 우리가 관심을 지니는 분야는 예술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그는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sup>3)</sup>이어서 오하라는 래리 리버스의 최대의 관심사는 작가의 가장 가까운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작가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 그리고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도 그의 삶과 관련한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고등학교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했던 래리 리버스는 1940년대 초 그의 그룹이 “Larry Rivers and his Mudcats”로 소개된 뒤부터 그의 이름을 ‘어빙 그로스버그’에서 ‘래리 리버스’로 바꾸었다. 그러나 래리 리버스가 이름을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그가 유태인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피로 보여진다. 래리 리버스에게 ‘유태인’이라는 태생적 정체성은 이후에 그가 유태인에 대한 주제를 다룬 ‘유태인 이야기’와 같은 작품을 그릴 때에도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의 가족은 항상 말하곤 했다. ‘그로

2) Larry Rivers and Carol Brightman. 『Drawings and Digressions』 (New York : Clarkson N. Potter, Inc.) 1979. p.23 - 김혜정, 「래리 리버스(Larry Rivers) 연구」 에서 재인용.

3) Larry Rivers, 『Why I paint as I do』 1959, reprinted in O'Hara, Art Chronicles, (pp.107-08) - 고동연, 「1950년대 뉴욕 화단에서 가십, 미술비평,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논의: 프랭크 오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에서 재인용.

스버그라는 이름이 부끄럽다면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니?’ 나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유태인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sup>4)</sup>라고 래리 리버스는 회상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래리 리버스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의 이미지를 작품의 주된 소재로 삼았다. 물론, 이 시기의 누드가 드러나는 작품들은 래리 리버스의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내는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은 그때까지의 역사에 나타난 나라 가운데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며 당시 미국은 ‘풍요한 사회(Affluent Society)’로 불리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한 평등화가 일어났으며, 소득이 비슷해짐에 따라 소비 유형과 가치관도 비슷해졌다. 미국은 ‘동질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미국사회에서는 다수의 생활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순응(comformity)의 미덕’이 강조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했으며, 남성은 정치와 경제생활의 주체자이고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게 임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의 미국사회에서 가족이 가지는 전형적인 화목함과 가족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이미지 속에서 래리 리버스는 자신이 무엇을 느꼈을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1992년 그의 자서전에서 보수적인 유태인 가정에서 독립하여 뉴욕 맨하튼 다운타운의 ‘보헤미안 문화’를 접하며 느낀 문화적 충동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순응의 미덕이 강조되었던 1950년대는 동성연애자들의 문화와 함께, 미국의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인구가 급격히 이동하게 되었고, 동성연애자들은 전쟁직후에 서서히 미국의 대도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등지에서 그들만의 ‘서브컬처’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혼란해진 도덕적, 성적 개념들을 다시금 전쟁전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움직임도 적지 않게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당시 냉전시절 동안 동성연애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가장 비미국적인 행위(Anti-American)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시기 래리 리버스는 1949년 이후 이후로 보헤미안 서클에서 동성애자 시

인들과 섞이면서 양성애적 생활을 하였다. 예술가로서 래리 리버스 그 자신은 그 당시 미국사회의 일반적 기준에서는 일탈된 남성과 아버지, 일탈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구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화가들이 남성의 누드화나 사진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않았던 것에 반하여 래리 리버스는 <O'Hara Nude with Boots>, 이하 <O'Hara> [그림 1] 를 1955년에 현대미술의 주요 등용문인 ‘휘트니 에 뉴얼’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생존한 젊은 남자의 누드를 세로 2.4미터와 가로 1.3미터의 거대한 화면에 옮기는 일은 1950년대 미국 미술계에서 흔치 않았으며, 동성애에 대한 탄압이 극성을 부리던 시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림 1] Larry Rivers  
<O'Hara Nude with Boots> 1954

래리 리버스는 <O'Hara>가 출품되었을 때, 미술비평가들이 일제히 이 작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였으며, 이것은 남성의 누드가 여성의 누드와도 비교해서 얼마나 금기시해온 소재인가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O'Hara>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된 영감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편견이나 주류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남성상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 사이에서 남성상을 재현하는데 즐겨 나타난 가족부츠와 성기를 드러내며 정면을 바라보는 누드화는, 그 이미지 뿐만 아니라 1950년대를 통틀어서 예술적 동반자였던 오히라와의 동성애적 관계 등을 통해 그 시대 속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충분히

4) Sam Hunter, 『Larry Rivers』, Ediciones Poligrafa, S.A.Spain, 1971, (p.11) - 이재남, 「래리 리버스(Larry Rivers)의 작품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5) 『Rivers and Brightman』, 1979, p.85 - 고동연, 「동성애자들의 자아상 표현 : 래리 리버스와 프랭크 오히라」에서 재인용.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시 여성의 누드에 비해 금기시해 온 남성의 누드, 정면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게다가 동성애를 상징한다고 해석되는 가족 부츠 그리고 이 작품의 모델인 오히라의 동성애적 생활들은 충분히 이 작품이 래리 리버스의 동성애를 상징한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작품 <O'Hara>에서 보여지는 모델의 표현은 아주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을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 Larry Rivers <Frank O'Hara with Boots On (sketch for the O'hara Painting)> 1954**

오히라의 누드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Frank O'Hara with Boots On (sketch for the O'hara Painting)>[그림2]에는 머리위로 손을 올린 모습과 앞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의 손동작이 겹치듯이 그려져 있다. 완성된 <O'Hara>작품에서 손을 머리위로 올리고 있는 동작으로 표현된 것은 래리 리버스가 크로키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손의 동작 중에서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최종적인 작업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가능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래리 리버스는 <O'Hara>작품에서 손을 머리위로 올리고 있는 동작을 선택했을까. 사실 가슴을 드러내는 여성의 누드에서와 다르게, 남성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현하기에는 머리위로 손을 올린 모습보다는 팔짱을 낀 동작이 조금 더 어울렸으리라고 생각된다. 남성이 머리위로 손을 올린 동작은 오히려 다소 자유롭지 못한 모습에 더욱 가깝다고 본인은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 모델이 취하고 있는 포즈는 기존의 이 작품에 대한 해석에서 보여지는 오히라와의 동성애와 관련한 성적인 표현의 직접적인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구속적인 현실 안에서'의 래리 리버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오히라'라는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하고자 한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 3. 래리 리버스의 가족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몸의 표현

래리 리버스는 예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삶이라고 말할 바 있다. 평론가이기도 했던 오히라는 그의 작품 안에 등장함과 동시에 그의 작업에 있어서도 많은 교류의 대상이었다. 그런 주변인들 이상으로 래리 리버스 본인의 삶과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그의 가족을 작품 속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래리 리버스의 가족이 표현된 작품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가족을 작품 안에 등장시키고 있는 배경과, 작품 속에 표현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래리 리버스의 '자아 정체성'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1950년대 당시 양성애적 생활을 보인 래리 리버스 본인을 포함해 그의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가족 구성으로부터 많이 이탈되어 있었다. 래리 리버스의 부인이었던 어거스타(Augusta Burger)는 그와의 이혼 후에도 자주 그의 집을 찾았는데, 브롱스의 집을 떠난 후로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두 아들 '조셉'과 '스티븐'이 래리 리버스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어거스타의 어머니 버디 버거(Berdie Burger)도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 살게 된다. 어거스타는 자신의 아들들과 어머니를 방문할 목적으로 래리 리버스의 집에 들르곤 했으며 작품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녀를 그린 작품 <Augusta>[그림3]에 대한 설명으로 래리 리버스는 주로 감정기복이 심한 그녀의 표정변화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신의 책에 적고 있다. <Augusta>에서 한 손에 창을 쥔 어거스타의 누드는 마치 그리스 신화의 신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이다. 보통 창을 쥔 모습은 남성적 대상에 주로 쓰이는 도구이거나 그리스 신화에서 창을 들고 있는 여신은 평화를 수호하는 여신인, 전쟁의 신 아테나(athena) 정도가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어거스타의 누드는 여성의 육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작품 속 어거스타의 표현은 자신의 부인으로서 혹은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어거스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Larry Rivers  
〈Augusta〉 1954

리버스는 〈Augusta〉 이외에도, 자신의 가족을 작품 안에 자주 등장 시켰다. 그의 아들을 그린 〈Joseph(1955)〉[그림4]은 이제 막 성인의 단계로 접어든 청년의 누드를 다룬 것이었다. 래리 리버스의 자서전에 따르면 조셉은 벗은 자신의 몸에 대한 창피함 반 두려움 반으로 책상에 구부정하게 기대어 있다<sup>6)</sup>고 묘사하고 있다. 이후 래리 리버스의 동성애 혹은 성적 정체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아들의 누드를 어떤 성적 정체성과 연관 지어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거스타〉의 누드화에서와 같이 아들의 누드화를 통하여 그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성적인 정체성에 관련한 것만이 아닌, 오히려 본인의 가족에 관한 것 또는 그 안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존재로서의 자아 등 래리 리버스 자신의 어떠한 내면의 자아 정체성을 그 작품 안에 감추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4] Larry Rivers 〈Joseph〉  
1955

6) Rivers, Larry and Arnold Weinstein, 『What Did I do? : Unauthorized Autobiography』, New York : Harper Collins Pub. 1992, (p.300).

래리 리버스는 〈Wedding Photo〉 시리즈 등을 통해서 결혼식과 가족의 이미지를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 이 작품에서 리버스는 가족사진의 중앙에 'REJECTED' 라는 문구를 넣었다. 원래 'REJECTED' 라는 용어는 사진 인화가들이 잘못 프린트되거나, 원하지 않는 사진을 골라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것은 래리 리버스의 자아 안에서, 자신의 결혼생활과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과의 차이들 속에서 그가 무엇인가를 암시해 내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1955년에 제작한 〈Double portrait of Birdie〉[도5]는 그의 장모인 버디 버거를 표현한 것으로, 극사실적인 표현기법으로 묘사된 작품이다. 그는 이 시기의 제작 기법에 대해 '나는 몸에 비치는 세밀한 빛들을 발견했는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조그만 것들까지 보였다. 그래서 나는 0.5인치 폭보다 더 좁은 아주 작은 붓으로 작업을 시작했다<sup>7)</sup>라고 말하였다. 〈Double portrait of Birdie〉를 통해 래리 리버스는 또한 무엇을 표현해내고 있었을까. 앞서 살펴본 가족이 등장하는 누드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버디의 초상화에서 그가 표현하고 자 했던 것은 적어도 그의 '성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누드'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주름진 피부를 드러낸 삶과 마주한 자아의 모습으로 보여 진다.



[그림 5] Larry Rivers 〈Double portrait of Birdie〉 1955

〈Double portrait of Birdie〉에는 한 공간에 두 명의 동일인의 있는 듯한 표현이 나타난다. 래리 리버스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하나의 대상의 겹치는 듯한 이중적인 표현방식은 자주 나타난다. 하나의 공간에, 동일한 존재가 위치와 동작을 달리하며 표현되어진 것은, 자신의 작품 안의 대상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

7) Larry Rivers with Carol Brightman, Drawing and Digressions, Clarkson N.Porter, Inc, Publishers, New York, 1979, p.55 - 이재남, 「래리 리버스(Larry Rivers)의 작품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이거나, 혹은 그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래리 리버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일 것이라고 보인다.

#### 4. 가족과 사회 속에서 분열된 자아정체성

동부 유럽에서 이주해온 유태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뉴욕 다운타운가의 예술가와 시인들과 활동하게 되는 래리 리버스의 삶에서 가족이나 자아의 정체성은 뚜렷하고 명확한 무언가가 아닌, 늘 불명확하고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56년 제작된 <The Studio>이라는 작품에서는 수평으로 펼쳐진 커다란 화면 위에 오히려, 그리고 래리 리버스의 아들인 조셉과 스티븐, 장모인 버디 버거 등이 함께 등장한다. 작가의 삶에서 가까이 존재했던 이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은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로 겹치듯 반복된다. 래리 리버스의 그림 속 인물들은 확정되지 않은 위치와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주변인들, 그리고 그의 시선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정체성의 불확실함이 그가 살아온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6] Larry Rivers <The Studio> 1956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래리 리버스의 동성애적, 혹은 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루는 논고들에서 그의 작품 해석이 그의 성적 정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의 작품에서 작가 자신도 강조한 '삶'에 관한 문제들, 특히 래리 리버스의 자아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들이 조금은 굴절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양성애적 성향을 보인 래리 리버스의 성적 정체성이 그의 자아를 이루는 모든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이 그의 태생에 관련한 그리고 그의 삶에 관련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아의 정체성'이라고 단정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술 속에서 삶의 중요

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 래리 리버스의 작가적 활동을 이해함에 있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그의 미술은 래리 리버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향후의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래리 리버스가 자신의 가족들을 표현한 작품에서 나타났던 것은 그 작품 안에서 표현된 대상들이 단순한 누드화가 아닌 그 대상과 마주한 래리 리버스 자신의 정체성의 불특정적 위치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가족을 표현한 작품은 많지만, 자신의 가족을 누드를 통해 표현한 작가는 흔하지 않다. 케네드 클라크(Kenneth Clark, 1960)는 그의 저서 『The Nude』에서 알몸(naked)과 누드(nude)를 구분하고 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임에 반하여 '누드'의 이미지는 재구성된 육체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 표현을 빌리자면 래리 리버스의 가족의 초상화들은 '누드'보다는 어쩌면 '알몸'에 가까운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장모 버디의 초상화나 두 아들의 벗은 몸의 표현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래리 리버스는 왜 자신의 가족들을 벗은 몸으로 표현한 것일까. 일반적인 가족의 관계에서 장모를 포함한 이제 성년이 되어가는 아들의 벗은 몸을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이 그 자신에 의해 표현되고 그려졌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그 작품의 표현 대상이 된 자아들이 느꼈을 감정보다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 래리 리버스의 감정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벌거벗은 몸이란 가장 철저하게 드러나는 자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과 이혼 등으로 래리 리버스는 그들 가족 앞에서 어쩌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가능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래리 리버스 본인의 이주해온 유태인이라는 태생적 환경과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의 동성애적 성향은 그 자신의 정체성의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작품 속에서 래리 리버스는 단지 그 앞에 벗은 몸으로 표현된 자신의 가족의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조금씩 상실하거나 인위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거스타의 모습은 결혼생활과 삶을 통해 성숙한 중년이 되어버린 몸을 통해 흔한 여성의 누드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젊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장모 버디의 초상화에서는 노년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주름과 노년의 벌거벗은 인체를 어쩌면 노골적으로 감춤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두고 있다. 또한 성년이 된

아들들의 몸은 순진함이나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성기를 드러낸 부끄러움이 나타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포즈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족들의 벗은 몸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부자연스러움 이상으로 어딘가 불안정하며 노골적으로도 느껴진다. 그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난 중첩적인 표현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의 모습 그리고 사라져버리거나 문질러져 버린 상태로 멈추어진 표현들 그리고 미완성의 공간들은 그런 벌거벗은 대상들의 모습과 함께 더욱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주변인을 포함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작업으로 표현한 리버스의 작품들에서 정작 리버스 본인의 자화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자신의 내부에서 느껴진 수많은 혼란과 모순들이 자신을 대신한 가족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부정확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이 미완성으로 보이는 듯 멈추어있는 화면 속에서 그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이다.

## 5. 결론

추상(抽象)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의 'Abstrahere'에서 유래된 말로서 '떼어내다', '이끌어 내다', '발취하다' 등의 뜻이다. 이러한 '추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상기해 볼 때, 추상예술이란 전체에서 분리하여 지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특성, 특질, 속성, 관계, 형태 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래리 리버스는 1958년과 1959년에 걸쳐서 서서히 추상회화의 양식으로 돌아간다. 그가 추상회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1950년대 말은, 이미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추상표현주의가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을 때 래리 리버스가 추상의 양식을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추상표현주의의 중요한 비평가중의 한 사람인 해롤드 로젠버그의 설명처럼 추상표현주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작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에서 창조되고 완성 되어 간다고 말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했던 래리 리버스의 작품에서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을 나타내듯 빚겨나며 중첩되던 인물의 모습들은 추상성이라는 양식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리버스에게 있어 추상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래리 리버스에게 있어서 1957년 장모 버디의 죽음과 1966년 그의 절친한 친구인 프랑크 오히리의 죽음은 그의 인생과 예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장모인 버디가 죽은 후 사우샘프턴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뉴욕으로 거처를 옮긴 후 잠시 초상화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실의 실내장식과 내부구조물 등을 배경으로 추상적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그가 추상으로 회귀한 것에는 버디의 죽음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의 미술양식의 흐름과 유행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모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는 투쟁의 시간들이 느껴지는 그의 작업과 인간적인 삶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래리 리버스의 작품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던 그의 '자아 정체성'은, 그의 작가적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던 표현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의 과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미술표현은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남긴다. 자신의 아내, 아들, 그리고 장모 등 가족의 벗은 몸을 표현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해석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표현을 드러내는 것은 한 개인의 작가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표현한 래리 리버스의 작품들은 그의 삶과 그의 성격정체성,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의 '가족의 역사와 함께, 작가의 자아 정체성, 래리 리버스의 삶을 논하는 것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래리 리버스가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몸을 통해, 마치 벌거벗은 자아의 모습처럼 예술을 통해 삶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미술표현과 작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표현한 작업을 통해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래리 리버스의 개인적인 가족사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회와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Rivers, Larry and Arnold Weinstein, 『What Did I do? : Unauthorzied Autobiography』, New York : Harper Collins Pub. 1992.
2. Harrison, Helen, 『Larry Rivers』 (New York : Harper & Low) 1984.
3. Gavin Butt, 'How New York queered the

- idea of modern art' - 『Varieties of Modernism』.
4. 김광우, 『위홀과 친구들』, 미술문화, 2003.
  5. 김혜정, 『래리 리버스(Larry Rivers)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6. 김정희, 『래리 리버스(Larry Rivers)의 완속기 회화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7. 이재남, 『래리 리버스(Larry Rivers)의 작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8. 고동연, 『동성애자들의 자아상 표현 : 래리 리버스와 프랭크 오히라』, 현대미술사학회, 2003.
  9. 고동연, 『1950년대 뉴욕 화단에서 가십, 미술비평,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논의: 프랭크 오히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2007.
  10. 고동연, 『성 구분의 혼란과 가족의 몸 : 래리 리버스의 누드화와 1950년대 미국』, 서양미술사학회, 2008.
  11. 고동연, 『금지된 이미지들 : 현대 미술과 센서십』,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연구소, 2008.